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otential Entrepreneurships in South Korea and China

안진원(Jinwon Ahn)*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유대현(Daehyun Yoo)**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국 문 요 약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양국 잠재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기업가라고 여길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0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157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본 설문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들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자유(Economic Freedom), 개인주의(Individualism)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성(Uncertainty Avoidance)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이며, 두 번째 연구가설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중국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높다’이다.

설문조사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보다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며 개인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에 있어서는 가설과 동일하게 중국 대학생들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대학생들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있어서 각각 다른 문화적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불확실성 회피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과 달리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혁신성에 있어서는 양국 대학생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내재적 통제력에 있어서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 서론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잠재적 기업가들인 양국의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중의 대학생들이다. 또한 이들의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양국의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가설

설문내용은 자유시장, 경쟁과 독점,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문화적 특성-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을 묻는 질문과 불확실성 회피성, 자기통제력, 혁신성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ahn@handong.edu

**dhyoo@handong.edu

첫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이 중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더 높다고 인식한다’이며, 두 번째 연구가설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한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중국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높다’이다.

3. 설문조사 결과

1) 문항구성

다음은 각 항목별 문항의 내용이다. 문항은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학생들이 느끼는 자국의 문화적 경향성을 묻는 ‘경제적자유’,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에 관한 질문과 대학생들의 ‘자기통제력’, ‘혁신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 위한 요인분석에서 각 질문의 KMO 값의 평균은 0.7872이었고 모든 문항에서 KMO는 0.6000 이상이었다. 또한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0.7861이었다.

2) 국가별 비교 분석

<표 1>. 각 수치 비교

국가별 수치 항목	평균		표준편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경제적 자유, 경쟁	9.49	10.56	1.78	1.27
개인주의	31.99	34.11	3.92	3.36
불확실성 회피성	17.54	16.26	2.43	2.84
혁신성	24.42	24.97	4.10	4.20
자기통제력	28.68	29.94	3.78	3.58
기업가적 지향성	701.21	750.13	156.48	169.65
기업가 지원성	590.13	674.26	104.51	125.38

<표 2> F검정(분산비교) 각 가정에 대한 p-값

	T-test diff=mean of Chinese students/ mean of Korean students Ho: diff = 0		
	Ha: diff < 0	Ha: diff ≠ 0	Ha: diff > 0
경제적자유	1.0000	0.0000***	0.0000***
개인주의	1.0000	0.0000***	0.0000***
불확실성 회피성	0.0000***	0.0000***	1.0000
혁신성	0.8977	0.2047	0.1023
자기통제력	0.9994	0.0013**	0.0006**
기업가적 지향성	0.9977	0.0045*	0.0023*
기업가 지원성	1.0000	0.0000***	0.0000***

<표 3> 합동 두 표본 t검정과 비합동 두 표본 t검정의 각 가정에 대한 p-값

	F-test ratio=standard deviation(sd) of Chinese students/ sd of Korean students Ho: ratio=1		
	Ha: ratio < 1	Ha: ratio ≠ 1	Ha: ratio > 1
경제적자유	0.0000***	0.0000***	1.0000
개인주의	0.0211*	0.0423*	0.9789
불확실성 회피성	0.9816	0.0367*	0.0184*
혁신성	0.6310	0.7379	0.3690
자기통제력	0.2431	0.4862	0.7569
기업가적 지향성	0.8620	0.2759	0.1380
기업가 지원성	0.9940	0.0120*	0.006**

* ** p<0.001; ** p<0.01; * p<0.05.

<표 1>, <표 2> 그리고 <표 3>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국가별로 제시하였고 이를 F검정과 t검정을 통해서 비교하였다.

양국의 문화 변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면 처음의 가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보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불확실성 회피성의 영역에서만 가설과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중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자국에 대해 불확실성 회피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중국 학생들은 ‘내재적 통제력’과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 지원성’에서 한국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수치를 보여주었다. ‘혁신성’에 있어서만 두 국가 학생들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문화와 기업가정신 회귀 분석

<표 IV-1>과 <표 IV-2>에서는 학생들의 기업가적 성향과 각 국가의 문화적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 ‘경제적자유가 보장되고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성향은 더 낮게 나타난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자유’는 오직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만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주된 문화적 변수가 된다. ‘개인주의’는 양국 대학생들 모두에게 기업가정신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불확실성 회피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에게는 기업가적 성향을 감소시키는 주된 문화적 변수이며,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자기통제력 변수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각각 다른 문화적 변수에 의해 기업가적 성향이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 회귀분석: 한-중 학생들의 기업가적 성향(내재적 통제력, 혁신성)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기통제력 (한국)		자기통제력 (중국)	
경제적 자유	0.4189** (0.004)	0.4806** (0.001)	-0.2591 (0.253)	-0.0960 (0.648)
개인주의	-0.0662 (0.321)	-0.0877 (0.180)	0.1497 (0.079)	0.1058 (0.179)
불확실성 회피성	-0.2155* (0.045)	-0.2485* (0.019)	-0.6180*** (0.000)	-0.5972*** (0.000)

종속변수 독립변수	혁신성 (한국)		혁신성 (중국)	
경제적 자유	0.2857 (0.072)	0.3077 (0.057)	-0.2065 (0.438)	-0.1189 (0.667)
개인주의	-0.0354 (0.626)	-0.0519 (0.477)	0.0791 (0.431)	0.0614 (0.552)
불확실성 회피성	-0.0286 (0.807)	-0.0500 (0.670)	-0.3457** (0.003)	-0.3286** (0.007)

<표 5> 회귀분석: 한-중 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한국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성*자기통제력)				
경제적 자유	17.5151** (0.004)	18.6259** (0.002)	18.6189** (0.002)	17.5071** (0.004)	19.9567** (0.001)
개인주의	-2.9053 (0.294)	-3.9798* (0.146)			16.683 (0.373)
불확실성 회피성	-5.8661 (0.188)		-7.3659 (0.094)		-43.2734 (0.189)
기업가 지원성		0.0174 (0.867)		0.0146 (0.886)	-1.1222 (0.269)

종속변수 독립변수	중국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성*내재적 통제력)				
경제적 자유	-11.9047 (0.268)		-17.0696 (0.123)	-1.9456 (0.845)	-11.1252 (0.261)
개인주의	5.8372 (0.149)		7.5069 (0.072)		14.0673 (0.550)
불확실성 회피성		-25.3655*** (0.000)		-25.2124*** (0.000)	-42.6787 (0.321)
기업가 지원성			0.5355*** (0.000)		0.5339*** (0.000)

※ *** p<0.001; ** p<0.01; * p<0.05.